

부모소명은 언제 적응적인가?: 부모소명 및 양육 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행복, 양육 스트레스, 관계 만족의 차이

Received: July 15, 2025
Revised: November 23, 2025
Accepted: March 3, 2026

임성수¹, 양수진²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석사¹,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교수²

교신저자: 양수진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E-MAIL: sue4507@naver.com

When is Parental Calling Adaptive?: Differences in Happiness, Parenting Str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ccording to Latent Profiles of Parental Calling and Parenting Characteristics

Sungsue Im¹, Sujin Yang²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M.A.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²

ABSTRACT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및 심리적 특성 조합과 심리적 적응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518명을 대상으로 부모소명의 4개 하위요인(목적/정체성, 열정/성장, 희생/헌신, 의식/집중),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긍정적 양육, 심리적 통제를 지표변수로 하는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11.1%), 헌신적 소명-양육형(25.3%), 평균적 소명-양육형(48.1%), 의무적 소명-통제형(4.0%), 제한된 소명-통제형(11.5%)의 5개 잠재집단이 도출되었다. 집단별 심리적 적응 수준을 비교한 결과, 부모소명과 긍정적 양육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높은 행복, 낮은 양육 스트레스, 높은 어머니-자녀 관계 만족 수준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의무적 소명-통제형'의 경우 높은 부모소명에도 불구하고 양육 스트레스가 높고 행복 및 어머니-자녀 관계 만족은 낮았다. 취업 상태와 종교는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소명이 양육 행동 및 자녀에 대한 심리적 태도와와의 결합에 따라 적응적 또는 부적응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부모소명의 복합적 기능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확장한다.

주요어 : 부모소명,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긍정적 양육, 심리적 통제, LPA



© Copyright 2026,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부모소명(Parental calling)이란 부모로서의 명확한 정체성을 지니고 자녀 양육을 통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목적의식을 의미한다(Coulson et al., 2012a). 높은 부모소명은 자녀 양육 과정에서 역경을 견디고 행복과 의미를 느끼게 하는 긍정심리학적 자원으로 기능하지만, 그 효과는 부모가 지닌 심리적 신념과 양육행동과의 결합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소명에는 명과 암이 공존하며(김수진 등, 2022; Berkelaar & Buzzaneell, 2015; Bunderson & Thompson, 2009), 높은 소명 자체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Duffy et al., 2011). 특히 부모소명이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부모역할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 자녀와의 건강하지 못한 심리적 융합(fusion) 등과 결합되거나, 다른 부정적 양육 특성과 함께 나타날 경우 여러 부정적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모소명을 보다 다면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기쁘다, 이수란, 2022; 이수란 등, 2021). 서양에서의 소명 개념은 흔히 개인의 자기실현이나 직업적 성취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최근 동양 문화에서는 소명의 의미가 부모 역할 중시와 관계적 책임감을 일부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이수란 등,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소명을 단순한 개인 내적 동기보다는 관계적·역할적 책임을 포함하는 문화 맥락적 구성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소명과 관련 심리·양육 특성을 위계적 구조가 아니라 개인 내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보고, 그 조합에 따른 이질적인 어머니 집단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부모소명의 네 가지 하위차원은 부모됨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서로 다른 심리적 측면을 반영한다.

즉, 부모가 되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삶의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목적/정체성’과 자녀 양육에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 성장을 반영하는 ‘열정/성장’은 부모로서의 정체감·목표의식·양육의 즐거움을 반영하는 의미 중심의 차원이다. 반면, 자녀 양육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투자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을 지속하려는 태도인 ‘희생/헌신’과 항상 자녀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특성인 ‘의식/집중’은 의무감·책임감·자원 투입을 강조하는 행동 중심의 차원이다. 전자는 부모 역할을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끄는 반면, 후자는 과도할 경우 심리적 소진이나 통제적 양육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Duffy et al., 2011).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소명에 대한 인식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개인 내적·관계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부모됨을 주로 희생과 헌신의 맥락에서 인식하는 반면, 어머니는 이에 더해 목적/정체성과 열정/성장의 차원을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수진 등, 2022). 또한, 어머니의 개인적 자원과 가족관계의 긍정성 수준에 따라 부모소명의 하위요인 전반이 높거나 낮게 나타나는 등(여예인 등, 2024), 각 하위요인의 조합과 불균형 패턴에 따라 개인 간 부모소명 프로파일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소명이 단일한 성향이 아니라, 의미 중심과 의무 중심의 요소가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구성개념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각 하위요인은 행복, 양육 스트레스, 관계만족 등과도 서로 다른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소명의 강도나 구성요인이 맥락에 따라 양면적 특성을 지닐 수 있음이 논의된 바 있다. 예컨대 본 연구 맥락에서는 ‘목적/정체성’과 ‘열정/성장’은 부모의 만족감과 행복을 높이는 반면, ‘희

생/헌신'과 '의식/집중'은 과도할 경우 스트레스와 통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각 하위요인의 상대적 조합 양상을 탐색함으로써, 부모소명의 다면적 기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사람 중심(person-centered) 접근을 채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시기는 자녀의 독립성 추구하고 정체성 혼란, 감정 기복 등 급격한 발달 변화와 부모의 중년기 위기가 맞물리며 양육 스트레스가 극대화되는 시기이다(Steinberg & Steinberg, 1995). 자녀가 14~18세일 때 부모는 가장 큰 양육 어려움을 겪으며(Pasley & Gecas, 1984), 사춘기 자녀의 성장통과 거리두기로 인해 부모의 자녀 관계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양육 만족도는 감소하였다(김의철, 박영신, 2002). 이러한 양육 부담과 자녀와의 갈등이 높은 맥락에서 부모소명은 그 자체로 일관된 적응적 자원이라기보다,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양육 행동(긍정적 양육, 심리적 통제)의 조합에 따라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부모소명은 어머니의 내적 특성 및 양육 행동과 결합하여 심리적 안녕을 지원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담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김예본 등(2023)의 연구에서는 양육 강도가 높은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에서 부모소명이 삶의 의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도전적인 양육 상황에서 부모소명이 보호적 자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통제적 양육이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함께 작용할 경우, 부모소명의 기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

상으로 부모소명 하위요인(목적/정체성, 열정/성장, 희생/헌신, 의식/집중)과 양육 및 심리적 특성(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긍정적 양육, 심리적 통제)을 복합적으로 결합한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고, 각 집단별 심리적 적응 수준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부모소명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실증적 개입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소명과 관련 심리·행동적 특성의 작용 방식에 따른 어머니의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 양상을 종합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자녀수반 자기가치감(Child-based self-worth)이란 부모가 자녀의 수행이나 성취에 자신의 가치를 수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가치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경향을 말한다(Ng et al., 2014). 다수의 연구에서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조건적 애정 표현 등과 연관되어, 자녀의 자율성 발달을 저해하고, 부모의 우울·불안을 높이며 부정적 양육 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ssor et al., 2004; Grolnick et al., 2007; Ng et al., 2014).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주로 개인주의적 문화권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된 것으로, 부모-자녀 간 관계의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녀의 성공을 부모 자신의 행복이나 삶의 의미와 연결하는 것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박영신, 김의철, 2009; Markus & Kitayama, 1991). 따라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그 자체로 병리적 특성을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양육 행동 및 심리적 특성과 결합되는지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질 수 있는 잠재적 변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설경옥 등,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자녀 양육 맥락에서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과 함께 나타나는 패턴이 상대적으로 적게 관찰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는 자율성과 독립성 요구가 급격히 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가치 판단에 조건적으로 연결하는 태도는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심리적 통제나 조건적 애정과 결합되기 쉽다(Assor et al., 2004; Ng et al., 2014). 이러한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기에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긍정적 양육보다는 통제적 양육과 결합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긍정적 양육과의 동시적 발현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긍정적 양육(Positive parenting)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 태도로 정의된다(허묘연, 2004).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에 따르면, 인간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를 지니며, 이러한 욕구의 충족이 개인의 안녕감과 정신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Ryan & Deci, 2002). 부모-자녀 관계에서 이러한 욕구 만족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양육 행동으로는 온정, 구조, 자율성 지지가 제시되어 왔다(Joussemet et al., 2008). 선행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양육은 자녀의 행복과 삶 만족에 일관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오은주, 2017), 어머니 자신의 행복과 관계 만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이은지, 도현심, 2020). 즉, 긍정적 양육은 단순히 자녀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행동을 넘어,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의미 있고 즐거운 경험으로 인식하게 하고,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삶의 만족을 높이는 심리적 완충 요인으로 기능한다.

반면,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는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경험과 표현, 사고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조정하거나 제한하려는 간접적 양육 행동을 의미한다(Barber, 1996). 이는 자녀의 자율성과 심리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왔으며(Barber & Harmon, 2002), 부모-자녀 관계의 만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안명희, 2014). 다만,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서양 문화권의 부모에 비해 관계성을 중시하는 동양 문화권의 부모는 심리적 통제 양육 행동을 더 높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Ng et al., 2014; Wang et al., 2007). 동양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단순히 부정적인 통제 행위라기보다는, 자녀의 안전과 도덕적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책임의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간섭과 통제가 독립 욕구와 충돌하면서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므로,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에 광범위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양육 행동들은 부모가 지닌 내적 신념과 가치관(부모소명,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결합될 때 그 강도와 심리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동일한 행동이라도 부모가 그것을 ‘의미 있는 헌신’으로 경험하는지, ‘의무적 책임’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심리적 적응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이처럼 심리·행동적 특성은 부모소명과 결합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 수준에 작용할 수 있다. 부모소명은 부모됨의 의미와 목적을 강화하는 내적 신념 체계로, 실제 양육 과정에서의 양육 신념 및 행동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심리적 자원이다(Coulson et al., 2012a). 즉, 부모소명의 기능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인식하고 양육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부모가 자신의 가치를 자녀의 성취에 조건화하는 신념으로, 높은 소명이라도 이러한 조건적 가치와 결합될 경우 헌신보다는 심리적 통제나 완벽주의적 양육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Duffy et al., 2011; Grolnick et al., 2007). 반면, 부모소명이 자녀의 자율성과 성장을 존중하는 긍정적 양육 태도와 결합할 때에는 행복과 관계 만족을 높이는 적응적 자원으로 기능한다(Ryan & Deci, 2002; Skinner et al., 2005). 따라서 부모소명은 독립적 특성이라기보다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양육 행동의 결합 방식에 따라 심리적 기능이 달라지는 상호작용적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소명,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긍정적 양육 및 심리적 통제의 결합 양상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적응적·비적응적 잠재유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성들이 개인 내에서 상이하게 결합되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이질적인 어머니 집단을 유형화하고 집단별 심리적 적응 수준을 탐색하는 데 적합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에서 어머니의 적응 지표로 행복,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어머니-자녀 관계 만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세 지표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적 적응 수준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변인들로,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을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행복은 객관적인 삶의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Diener, 1984). 어머니의 행복은 단순한 개인적 정서 차원을 넘어 가족 구성원의 행복(Casas et al., 2008)과 밀접히 연결되기 때문에 자녀와 가족의 긍정적 기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 양육 과정에서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의미한다(Abidin, 1990).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도전적인 양육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현저히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

하게 되는데(Abidin, 1992; Anderson, 2008), 다수의 연구들은 주로 돌봄의 강도가 높은 영유아기 및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높은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양육 행동을 높여 자녀의 발달 및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한 변인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자녀 관계 만족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관계의 질에 대한 어머니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Guidubaldi & Cleminshaw, 1985). 자녀와의 관계는 주관적 안녕감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석말숙, 2004)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와의 관계 만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적·환경적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종교 유무는 부모 역할 인식과 양육 행동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을 공변수로 설정하였다. 우선,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양육을 비교한 선행연구들(권미경, 2011; Greenberger & Goldberg, 1989)에 따르면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혼재된 결과를 보이거나(정태연, 노현정, 2005), 잠재집단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공변수로 포함하였다. 또한, 소명은 종교적 신념에서 출발한 개념으로(Weber, 1958), 종교 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특성은 달라질 수 있다. 비록 부모의 종교적 신념이 자녀 양육 행동에 미치는 방향성은 연구마다 비일관적이나(Henderson et al., 2016; Mahoney et al., 2001; Wolfinger & Wilcox, 2008), 부모의 종교적 가치는 다른 가치들보다 양육 경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adilla-Walker & Thompson,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종교 유무를 공변수로 포함하여 잠재집단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행복,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자녀 관계 만족)에 기여하는 개인 내적 특성(부모소명,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양육 특성(긍정적 양육, 심리적 통제)에 따른 잠재집단을 확인하고, 각 집단별 행복,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자녀 관계 만족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개입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종교 유무를 공변수로 투입하여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소명(목적/정체성, 열정/성장, 희생/헌신, 의식/집중),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긍정적 양육, 심리적 통제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이 존재하는가?

연구 문제 2.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종교 유무는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어떠한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행복,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자녀 관계 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18세의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 518명을 대상으로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모소명 및 양육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므로, 자녀와의 일상적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위해 청소년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만 13~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기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하였다. 설문은 2025년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수집된 518명을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46.18세($SD=3.94$), 자녀의 평균 연령은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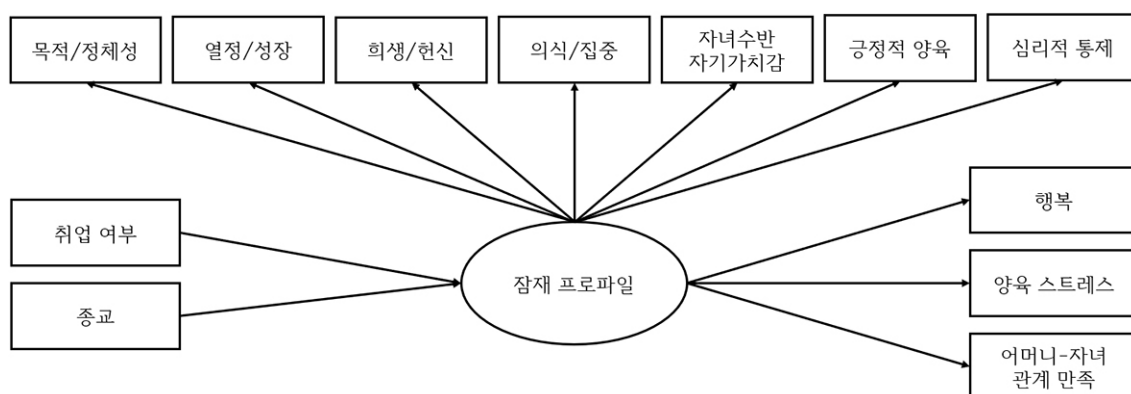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5.54세($SD=1.70$)였다.

연구도구

부모소명

Coulson 등(2012b)이 개발한 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Scale(SSCCS)을 이수란 등(2021)이 한국 문화 및 양육 특성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타당화 한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K-SSCCS)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목적/정체성 5문항(예: '부모가 되는 것은 나의 당연한 타고난 목적이다.'), 열정/성장 5문항(예: '나는 엄마/아빠로 사는 것에 열정적이다.'), 희생/헌신 5문항(예: '나는 자녀에게 헌신적이다.'), 의식/집중 3문항(예: '나는 내 아이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다.')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소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수란 등(2021)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목적/정체성 .86, 열정/성장 .85, 희생/헌신 .82, 의식/집중 .74, 그리고 전체는 .92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정체성 .88, 열정/성장 .85, 희생/헌신 .88, 의식/집중 .79, 전체 .91로 나타났다.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Eaton과 Pomerantz(2004)가 개발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척도(Parental Contingent Self-worth Scale)를 설경옥 등(2015)이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며, 예시 문항으로는 '내 자녀가 남들보다 못하면, 내 자신이 싫어진다.', '내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는 종종 내 자녀가 남들보다 얼마나 잘하는지에 달려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성취에 자기가치감을 수반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설경옥 등(2015)의 연구에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긍정적 양육

Skinner 등(2005)이 개발한 부모 양육 행동 척도(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PSCQ)를 정교영과 신희천(2011)이 타당화 한 한국판 부모 양육 행동 척도(K-PSCQ)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긍정적 양육 행동(온정, 구조 제공, 자율성지지)과 부정적 양육 행동(거부, 혼란, 강제)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은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 행동을 평가하는 9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온정 5문항(예: '나는 우리 아이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구조 제공 2문항(예: '나는 우리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분명히 한다.'), 자율성 지지 2문항(예: '나는 우리 아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도, 아이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교영과 신희천(201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온정 .72, 구조 제공 .61, 자율성 지지 .8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73, .65, .72였으며 전체 .79로 나타났다.

심리적 통제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Barber(1996)가

개발하고 전숙영(2007)이 번안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를 이인영(2022)이 어머니 보고형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자기표현제한 3문항(예: '나는 자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다른 말을 꺼내곤 한다.'), 감정 불인정 3문항(예: '나는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려고 한다.'), 자녀 비난 3문항(예: '나는 자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죄책감 유발 2문항(예: '나는 자녀를 키우면서 해준 것들에 대해 자주 말한다.'), 애정 철회 3문항(예: '나는 자녀가 내 뜻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차갑게 대한다.'), 불안정한 감정 기복 2문항(예: '나는 자녀랑 있을 때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감정 불인정을 측정하는 4번 문항은 원척도 문항과 의미가 가깝도록 문장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인영과 정영숙(2019)의 연구에서 심리적 통제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표현 제한 .69, 감정 불인정 .68, 자녀 비난 .64, 죄책감 유발 .62, 애정 철회 .79, 불안정한 감정 기복 .75, 전체 .89이었다.

행복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하고 타당화 한 단축형 행복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9문항으로, 삶의 만족 3문항(예: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긍정 정서 3문항(예: '행복한'), 부정 정서 3문항(예: '부정적인')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최종 행복 점수는 삶의 만족 총점과 긍정 정서의 총점을 합한 값에서 부정 정서의 총점을 뺀 값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최종 행복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서은국과 구재선(201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삶의 만족 .87~.89, 긍정 정서 .85~.86, 부정 정서 .82~.83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 .91, 긍정 정서 .93, 부정 정서 .81, 전체 .89로 나타났다.

양육 스트레스

Abidin(1990)이 개발하고 서혜영(1991)이 번안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 PSI)를 신숙재(1997)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일상적 스트레스 10문항(예: '내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꽤 많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10문항(예: '자녀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다.'), 자녀의 기질과 관련한 스트레스 10문항(예: '자녀는 변덕스럽고 기분이 쉽게 변한다.')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숙재(199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일상적 스트레스 .76,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74, 자녀의 기질과 관련한 스트레스 .8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74, .83, .87로 나타났다.

어머니-자녀 관계 만족

어머니-자녀 관계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Guidubaldi와 Cleminshaw(1985)가 개발한 부모 역할 만족도 척도(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 CGPSS)를 현온강과 조복희(1994)가 수정한 척도에서 부모-자녀 관계 하위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아이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어서 기쁘다.', '나는 아이들로부터 받는 애정과 사랑에 대해서 만족한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자녀 관계 만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현온강과 조복희(1994)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Mplus 8.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부모소명(목적/정체성, 열정/성장, 희생/헌신, 의식/집중)과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긍정적 양육, 심리적 통제를 지표변수로 활용한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여 이질적 잠재집단을 확인하였다. 도출된 잠재프로파일 간 행복,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자녀 관계 만족 수준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Wald χ^2 검증(DU3STEP)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집단 분류에 미치는 공변수의 영향력을 검정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R3STEP; Asparouhov & Muthén, 2014).

LPA에서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모형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정보 지수인 AIC(Akaike, 1974),

BIC(Schwarz, 1978), Adjusted BIC(Sclove, 1987)는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며(Jung & Wickrama, 2008),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는 Entropy는 0.8 이상일 때 우수한 분류로 평가된다(Lubke & Muthén, 2007). LMR-LRT(Lo et al., 2001)와 BLRT(Peel & McLachlan, 2000)는 잠재집단 수가 k개인 모형과 k-1개인 모형을 비교하는 지수로, 검정통계량이 유의할 경우($p < .05$) 잠재집단이 k개인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각 잠재집단의 비율이 5% 이상(Jung & Wickrama, 2008), 표본 크기가 25명 이상일 때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제안되며(Berlin et al., 2014), 모형의 간명성(parsimony)과 해석 가능성(interpretability) 또한 최종 모형 결정 시 함께 고려하였다(Bauer & Curran, 2003). 단, 선행연구에 따르면(Lubke & Neale, 2006; Weller et al., 2020), 이러한 기준을 엄격히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론적 타당성과 경험적 해석력이 확보된 소규모 집단은 유의미한 잠재유형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결 과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기술통계 분석 결과, 모든 변수에서 왜도의 절댓값이 3, 첨도의 절댓값이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이 만족되었다(Kline, 2023). 상관분석 결과,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열정/성장, 긍정적 양육 간의 상관, 그리고 심리적 통제와 부모소명의 세 하위요인(목적/정체성, 희생/헌신, 의식/집중) 간의 상관을 제외한 모든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이 유의

표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518)

	1	1-1	1-2	1-3	1-4	2	3	4	5	6	7
1. 부모소명	-										
1-1. 목적/정체성	.77***	-									
1-2. 열정/성장	.78***	.45***	-								
1-3. 희생/헌신	.83***	.43***	.52***	-							
1-4. 의식/집중	.72***	.35***	.43***	.63***	-						
2.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19***	.23***	-.08	.19***	.27***	-					
3. 긍정적 양육	.54***	.27***	.49***	.49***	.48***	.07	-				
4. 심리적 통제	-.13**	-.01	-.31***	-.08	-.00	.43***	-.20***	-			
5. 행복	.29***	.21***	.46***	.14**	.04	-.24***	.26***	-.33***	-		
6. 양육 스트레스	-.28***	-.14**	-.49***	-.16***	-.07	.33***	-.32***	.58***	-.60***	-	
7. 어머니-자녀 관계 만족	.44***	.23***	.57***	.31***	.26***	-.16***	.53***	-.45***	.51***	-.70***	-
평균	53.46	13.2	15.55	15.65	9.09	49.2	26.01	33.76	16.53	76.2	35.5
표준편차	7.92	3.15	2.6	2.75	1.8	15.6	3.24	6.88	8.73	14.7	6.4
왜도	.15	.17	-.41	-.04	.02	.19	.33	.07	-.55	.10	-.58
첨도	.01	-.02	.87	-.51	-.35	-.15	1.32	.65	.67	.05	1.00

** $p < .01$. *** $p < .001$.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변수 간 상관이 .00~.63으로 나타나 프로파일 구분을 위한 변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1과 같다.

잠재프로파일 분류

본 연구는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파악하기 위해 분류 집단 수를 두 개에서 여섯 개까지 순차적으로 늘려가며 모형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정보 지수인 AIC, BIC, Adjusted BIC는 집단 수가 증가할수록 일관되게 감소하면서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되었다. Entropy 지수는 집단 수가 늘어날수록 감소

하다가 5집단 모형에서 .805로 상승하여 분류의 명확성이 개선되었다. BLRT는 모든 경우에서 유의하였다($p < .05$). 반면, LMR-LRT는 4집단 모형($p = .61$)보다 5집단 모형에서 p 값이 .07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6집단 모형($p = .29$)에서 다시 증가하여 유의하지 않았다. LMR-LRT는 잠재집단 수가 $k-1$ 개인 모형과 k 개 모형 간 상대적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LMR-LRT가 비유의하다는 결과는 $k-1$ 모형이 k 모형보다 더 우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 모형 간 상대적 차이가 통계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LPA에서는 단일 지표보다 정보 지수(AIC, BIC, aBIC), Entropy, BLRT, 그리고 모형의 이론적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면적 판단이 권고되고 있다

표 2. 잠재프로파일의 분류 기준

(N=518)

모형	정보 지수			분류 질 Entropy	모형 비교		잠재집단별 최대/최소 비율 (%)
	AIC	BIC	Adjusted BIC		LMR-LRT	BLRT	
2	9707.826	9801.326	9731.493	0.810	0.00	0.00	60.9% / 39.1%
3	9564.861	9692.360	9597.134	0.800	0.02	0.00	55.5% / 12.7%
4	9478.659	9640.158	9519.538	0.752	0.61	0.00	46.9% / 13.3%
5	9419.731	9615.230	9469.217	0.805	0.07	0.00	48.1% / 4%
6	9353.485	9582.984	9411.577	0.833	0.29	0.00	47.3% / 2.9%

주. LMR-LRT, BLRT는 p값을 제시하였음.

(Nylund et al., 2007).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4집단 모형은 본 연구에서 관찰된 중요한 심리·양육 특성의 이질성을 충분히 분리하지 못하고 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MR-LRT의 비유의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합도 지표의 우수성, 잠재집단의 해석 가능성, 그리고 5집단 모형에서만 독립적으로 도출된 유형의 이론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집단 모형을 선택하였다.

비록, 5집단 모형에서 1개 집단은 전체 표본의 4%만을 차지하여 최소 비율 기준(5%)을 약간 하회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론적, 경험적 및 통계적 근거에 기반하여 5집단 모형을 최종 선택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론적 타당성과 해석 가능성이 확보된다면 표본 크기가 작더라도 유의미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Weller et al., 2020). 둘째, 해당 집단(4%)은 부모소명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탐색적 패턴을 보여준다. 즉, 높은 의무 중심적 소명, 높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높은 심리적 통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역설적 조합이 관찰되어, 부모소명의 이중적 기능을 탐색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시사된다. 비록 소수이지만 이러한 '의무적 소

명-통제적 양육' 어머니들의 존재는 부모교육 및 상담 개입에서 중요한 표적 집단이 될 수 있다.

모든 모형 적합도 지수를 이상적 수준으로 충족하는 단일한 잠재프로파일 유형을 도출하는 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Nylund-Gibson et al., 2014), 지표 간 결과가 상이할 경우, 모형의 유용성,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한 질적 검토를 통해 집단 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Nagin, 2005; Vermunt & Magidson, 2002). 이에 본 연구는 잠재집단별 그래프 양상과 선행연구 결과, 모델의 유용성 및 해석의 풍부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집단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잠재프로파일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 도출 및 명명

부모소명 하위요인과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긍정적 양육, 심리적 통제에 따라 도출된 잠재프로파일의 기술통계치를 표 3에 제시하고, 잠재프로파일 유형의 양상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저선(baseline)은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위해 표준화된 지표변수의 전체 표본 평균(z=0)을 의미한

표 3.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기준변수의 기술통계치

(N=518)

	집단 1 제한된 소명-통제형 (n=57, 11.5%)		집단 2 평균적 소명-양육형 (n=254, 48.1%)		집단 3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 (n=57, 11.1%)		집단 4 헌신적 소명-양육형 (n=130, 25.3%)		집단 5 의무적 소명-통제형 (n=20, 4.0%)	
	M	SE	M	SE	M	SE	M	SE	M	SE
목적/정체성	-.80***	.14	-.23**	.08	1.22***	.27	.19	.16	.52*	.26
95% CI	[-1.34, -0.52]		[-0.40, 0.02]		[0.43, 1.70]		[-0.63, 0.71]		[-0.17, 1.54]	
열정/성장	-1.51***	.24	-.18*	.07	1.32***	.11	.52***	.12	-.47	.38
95% CI	[-2.82, -1.05]		[-0.50, 0.03]		[0.98, 1.50]		[0.03, 1.07]		[-2.57, 0.25]	
희생/헌신	-1.20***	.16	-.50***	.07	1.33***	.06	.82***	.16	.66**	.23
95% CI	[-2.13, -0.88]		[-0.77, -0.30]		[1.18, 1.49]		[-0.05, 1.15]		[-0.22, 1.38]	
의식/집중	-1.07***	.14	-.38***	.08	1.35***	.13	.46**	.15	.93***	.19
95% CI	[-2.41, -0.81]		[-0.55, -0.16]		[1.01, 1.53]		[-0.67, 1.10]		[-0.25, 1.39]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25	.19	-.29**	.10	.40	.24	.03	.16	1.46***	.26
95% CI	[-0.54, 0.67]		[-0.77, 0.02]		[-0.03, 1.35]		[-0.57, 0.46]		[0.59, 2.47]	
긍정적 양육	-1.17***	.18	-.20**	.07	1.29***	.29	.31**	.11	.24	.22
95% CI	[-1.80, -0.81]		[-0.42, -0.03]		[0.85, 2.55]		[0.04, 0.97]		[-0.54, 0.84]	
심리적 통제	.60***	.16	-.12	.08	-.48**	.17	-.15	.14	1.98***	.47
95% CI	[0.08, 0.98]		[-0.50, 0.11]		[-1.00, -0.09]		[-0.64, 0.29]		[0.45, 3.47]	

* $p < .05$. ** $p < .01$. *** $p < .001$.

주1. 변수의 값을 표준화 점수로 변환하여 제시하였음

주2. 95% 신뢰구간(CI)은 해당 잠재집단의 평균 추정치에 대한 신뢰범위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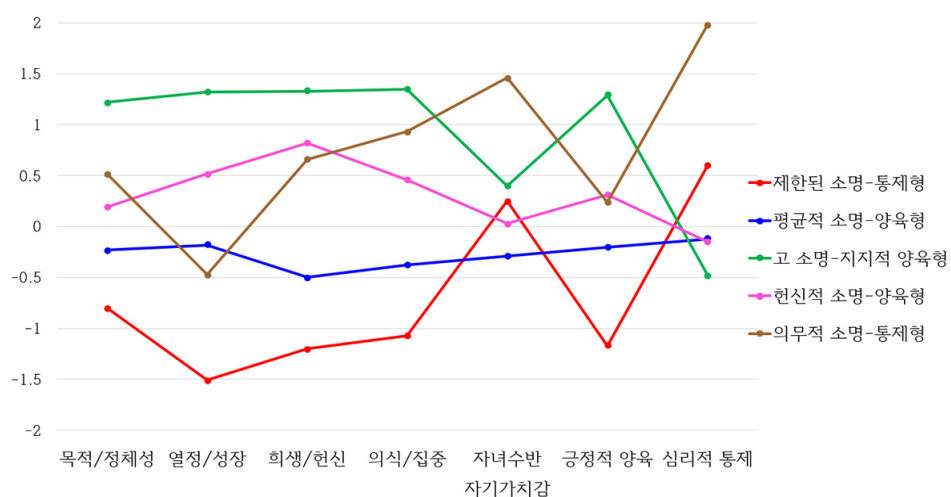


그림 2. 잠재프로파일 유형

다. 따라서 집단별 지표변수의 수준이 기저선보다 높거나 낮다는 것은 전체 표본의 평균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그림 2는 잠재집단별 지표변수의 패턴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시각적 정보는 표 3의 평균값, 95% 신뢰구간, 그리고 기저선 대비 유의성 여부(*)와 함께 해석될 때 보다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집단($n=57$, 11.5%)은 부모소명과 긍정적 양육이 기저선보다 유의하게 낮고, 심리적 통제는 유의하게 높은 반면,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기저선 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소명과 긍정적 양육 수준이 제한적이며 통제 성향이 강한 특성을 보여 '제한된 소명-통제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n=254$, 48.1%)은 모든 기준변수 중 심리적 통제만 기저선 수준에 머물렀고, 나머지 변인은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모 역할에 대한 정서적 몰입과 양육 특성이 평균 이하이지만, 비적응적이거나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었다. 전체 표본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장 전형적인 다수집단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무난한 양육 특성을 반영하여 '평균적 소명-양육형'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n=57$, 11.1%)은 부모소명과 긍정적 양육이 유의하게 높고, 심리적 통제는 유의하게 낮았으며,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기저선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부모로서의 소명이 높고 지지적 양육 특성이 뚜렷한 가장 이상적인 유형으로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집단($n=130$, 25.3%)은 부모소명의 네 하위요인 중 '목적/정체성'만 기저선 수준이었고, '열정/성장', '희생/헌신', '의식/집중'은 모두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긍정적 양육 또한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심리적 통제는 기저선 수준이었다. 즉, 부모됨의 정체성을 삶의 핵심으로 인식하지는 않지만, 자녀를 향한 헌신과 집중이 높은 행동적 소명 특성을 보여 '헌신적 소명-양육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집단($n=20$, 4.0%)은 부모소명의 네 하위요인 중 '열정/성장'은 기저선 수준이었으나, '목적/정체성', '희생/헌신', '의식/집중'은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심리적 통제가 유의하게 높았고, 긍정적 양육은 기저선 수준이었다. 즉, 부모 역할에 대해 강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면서도 통제적 양육이 동반되는 특성을 보여 '의무적 소명-통제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행복,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자녀 관계 만족의 차이

부모소명,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긍정적 양육, 심리적 통제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종속변수의 평균과 표준오차, χ^2 차이검정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행복과 어머니-자녀 관계 만족은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이 가장 높았고, 양육 스트레스는 '의무적 소명-통제형'이 가장 높았다. 또한,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모든 종속변수의 차이가 유의하였다($p < .001$).

구체적으로, 행복은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이 가장 높았고, '헌신적 소명-양육형', '평균적 소명-양육형', '의무적 소명-통제형' 순으로 이어졌으며, '제한된 소명-통제형'은 다른 네 집단에 비해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p < .05$). 다음으로, 양육 스트레스는 '의무적 소명-통제형'과 '제한된 소명-통제형'이 '평균적 소명-양육형', '헌신적 소명-양육형'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1$), '고 소명-지지

표 4.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종속변수의 차이검정

(N=518)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집단 5	Overall χ^2	집단 비교
행복	3.50 (.18)	4.57 (.08)	5.15 (.22)	4.61 (.16)	4.15 (.23)	56.703***	3, 4, 2, 5 > 1
양육 스트레스	3.05 (.06)	2.48 (.03)	2.16 (.07)	2.46 (.05)	3.21 (.10)	171.079***	5, 1 > 2, 4 > 3
어머니-자녀 관계 만족	2.76 (.08)	3.54 (.04)	4.14 (.08)	3.78 (.06)	2.97 (.21)	190.33***	3 > 4 > 2 > 5, 1

*** $p < .001$.

1=제한된 소명-통제형, 2=평균적 소명-양육형, 3=고 소명-지지적 양육형, 4=헌신적 소명-양육형, 5=의무적 소명-통제형

적 양육형'은 유의하게 낮았다($p < .01$). 마지막으로, 어머니-자녀 관계 만족은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헌신적 소명-양육형', '평균적 소명-양육형', '의무적 소명-통제형', '제한된 소명-통제형' 순으로 낮아졌다. 이때 '의무적 소명-통제형'과 '제한된 소명-통제형'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신적 소명-양육형'에 속할 확률에 대한 어머니의 종교 유무의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무교 집단에 비해 종교가 있는 집단은 '평균적 소명-양육형'에 속할 확률이 2.255배 높았고($B=.813, p < .05, O.R.=2.255$), '헌신적 소명-양육형'에 속할 확률이 3.07배 높았다($B=1.122, p < .01, O.R.=3.07$).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따른 공변수 효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 및 종교가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R3STEP 방법을 활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준 집단 대비 비교 집단에 속할 상대적 확률을 나타내는 승산비(Odds Ratio)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제한된 소명-통제형'을 기준 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헌신적 소명-양육형'에 속할 확률에 대한 취업 여부의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908, p < .05, O.R.=2.479$). 구체적으로, 미취업모 집단보다 취업모 집단이 '제한된 소명-통제형'보다 '헌신적 소명-양육형'에 속할 확률이 2.479배 높았다.

한편 종교의 경우, '제한된 소명-통제형'을 기준 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평균적 소명-양육형'과 '헌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부모소명을 포함한 어머니의 양육 및 심리적 특성에 따른 잠재집단을 확인하였다. 부모소명은 부모됨과 자녀 양육에 있어서 긍정적 자원으로 주목받아 왔으나(기쁘다, 이수란, 2022; 이수란 등, 2021), 과도한 소명이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 행동이나 자녀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결합될 때 오히려 자녀에 대한 기대와 부모로서의 책임 및 부담을 높여 역기능적 결과와 연관될 수 있다. 이에 부모소명의 하위요인(목적/정체성, 열정/성장, 희생/헌신, 의식/집중)과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 긍정적 양육, 심리적 통제를 지표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5개의 잠재집단이

표 5.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영향요인 검정

(N=518)

기준 집단		비교 집단	B	S.E.	O.R.	
취업 여부	제한된 소명-통제형	평균적 소명-양육형	.528	.367	1.696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	.255	.440	1.291	
		헌신적 소명-양육형	.908*	.401	2.479	
		의무적 소명-통제형	.199	.655	1.220	
	평균적 소명-양육형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	-.273	.341	.761	
		헌신적 소명-양육형	.380	.317	1.462	
		의무적 소명-통제형	-.329	.597	.719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	.653	.439	1.920	
	헌신적 소명-양육형	의무적 소명-통제형	-.056	.650	.945	
		의무적 소명-통제형	-.709	.659	.492	
		제한된 소명-통제형	평균적 소명-양육형	.813*	.398	2.255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	.898	.464	2.454
헌신적 소명-양육형	1.122**		.414	3.070		
의무적 소명-통제형	.921		.670	2.512		
종교	평균적 소명-양육형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	.085	.335	1.089	
		헌신적 소명-양육형	.309	.282	1.362	
		의무적 소명-통제형	.108	.590	1.114	
		헌신적 소명-양육형	.224	.414	1.251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	의무적 소명-통제형	.023	.644	1.024	
		의무적 소명-통제형	-.200	.639	.818	

* $p < .05$. ** $p < .01$.

주1. 취업 여부: 0=미취업, 1=취업

주2. 종교: 0=무교, 1=유교

도출되었으며, 집단 간 행복,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자녀 관계 만족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종교가 잠재집단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하였다. 5가지 잠재집단은 '제한된 소명-통제형(n=57, 11.5%)', '평균적 소명-양육형(n=254, 48.1%)', '고 소명-지지적 양

육형(n=57, 11.1%)', '헌신적 소명-양육형(n=130, 25.3%)', '의무적 소명-통제형(n=20, 4.0%)'이며 각 집단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한된 소명-통제형(n=57, 11.5%)'은 부모소명의 네 하위요인이 모두 매우 낮고, 특히 열정/성장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 전반적인 소

명의 결여가 두드러지는 집단이다. 자녀수반 자기 가치감은 평균 수준을 보였으며, 긍정적 양육은 유의하게 낮고 심리적 통제는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부모 역할에서 의미와 보람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동시에, 청소년기 자녀에게 통제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는 특성이 결합된 유형으로, 자녀와의 관계 및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적응 측면에서 잠재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평균적 소명-양육형(n=254, 48.1%)’은 가장 많은 인원이 속한 집단으로, 부모소명의 네 하위요인과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긍정적 양육 모두 기저선을 하회하였으며, 심리적 통제는 기저선 수준이었다. 이들은 전체 집단 중 유일하게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사춘기 자녀의 반항과 거리두기에도 과도하게 상처 받지 않고 일정한 정서적 거리감을 유지하는 양육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독립 욕구가 강해지는 사춘기 자녀에게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는다” 양육 방식을 택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회피하는 현실적 적응 전략일 수 있다. 다만, 부모 역할 수행에 있어서 보호 요인으로 기능하는 부모소명과 긍정적 양육이 모두 평균 이하라는 점에서 사춘기의 혼란과 입시 스트레스를 겪는 자녀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지지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수준은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이나 ‘헌신적 소명-양육형’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

셋째,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n=57, 11.1%)’은 부모소명의 네 하위요인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으로, 전반적인 소명 수준이 가장 높았다.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평균 수준이었고, 긍정적 양육은 유의하게 높으며 심리적 통제는 유의하게 낮았다. 즉, 이 집단은 부모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강하

게 느끼면서, 자녀에게 온정과 구조를 충분히 제공하고 통제적 개입은 최소화하는 가장 지지적인 양육 유형으로, ‘제한된 소명-통제형’과 상반된 프로파일 양상을 보인다. 부모 역할을 통해 경험하는 긍정적 정체성과 정서적 보람이 자녀를 향한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 행동과 결합되어, 어머니 자신의 행복감은 물론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도 가장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적응적인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헌신적 소명-양육형(n=130, 25.3%)’은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속한 집단으로, 부모소명 하위요인 중 열정/성장, 희생/헌신, 의식/집중은 유의하게 높고, 목적/정체성은 기저선 수준을 보였다.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심리적 통제는 기저선 수준이며, 긍정적 양육은 유의하게 높았다. 이 집단은 부모소명 중에서도 양육을 통해 느끼는 정서적 보람과 지속적인 헌신 및 몰입이 두드러지는 유형으로, 이러한 소명 특성이 긍정적 양육 행동과 결합된 비교적 건강한 어머니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높은 헌신성과 낮은 심리적 통제의 공존은 자녀에게 과도한 심리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서적·실천적 지지를 제공하는 양육 특성을 보여,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에 비해 이들은 목적/정체성 수준이 평균에 머물고, 긍정적 양육 행동의 강도 역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은 양육을 통해 강한 의미와 정체성을 경험하기보다는, 자녀를 위해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고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실천적·수용적 양육이 두드러진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무적 소명-통제형(n=20, 4.0%)’은 부모소명의 목적/정체성, 희생/헌신, 의식/집중 수준은 유의하게 높고, 열정/성장은 기저선 수준에

머무르는 등 하위요인 간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심리적 통제는 전체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긍정적 양육은 기저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모 역할을 중요한 책무로 여기며 강한 책임감을 갖고 헌신하지만, 양육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이나 정서적 보상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자녀의 성취를 중시하는 가치 인식과 높은 심리적 통제가 결합되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투자와 개입이 강하게 유지되는 복합적 특성을 보이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자녀 간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는 한국적 가족문화 맥락에서 일부 어머니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며, 특히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는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과 긴장을 높일 위험이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큰 집단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5가지 잠재집단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부모소명과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긍정적 양육, 심리적 통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되면서 상이한 심리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과 ‘헌신적 소명-양육형’은 모두 긍정적 양육 수준이 높고 심리적 통제는 낮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전자는 의미 중심(목적/정체성, 열정/성장)의 소명 구성과 전반적으로 높은 소명 수준이 두드러지는 반면, 후자는 헌신과 집중이 강조되는 의무 중심 소명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부모 정체성 차원은 기저선에 머무른다. 즉, 두 집단은 모두 자녀에게 따뜻하고 구조적인 양육을 제공하지만, 하나는 부모 역할을 깊이 있는 삶의 의미로 경험하는 유형, 다른 하나는 실천적 헌신과 책임을 통해 양육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반면 ‘제한된 소명-통제형’과 ‘의무적 소명-통제형’은 모두 심리적 통제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전자는 부모소명 전반이 낮아 부모 역할에서 의미와 보람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제적 양육이 나타나는 유형인 반면, 후자는 목적/정체성, 희생/헌신, 의식/집중이 모두 높고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까지 높아, 강한 책임감과 자녀 성취에 대한 조건적 가치가 과도한 개입과 통제로 이어지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조는 청소년기 양육에서 높은 통제가 항상 동일한 심리적 배경을 갖지 않으며, 부모소명의 수준 및 성격에 따라 전혀 다른 맥락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평균적 소명-양육형’은 부모소명과 긍정적 양육이 모두 기저선 이하이면서 심리적 통제는 높지 않은, 비교적 중립적인 양육 양상을 보이는 집단으로, 적극적 지지는 부족하지만 갈등을 증폭시키는 통제도 상대적으로 적은 “중간”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양육 행동 수준이라도 소명 및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의 결합 양상에 따라 어머니가 경험하는 의미, 부담, 정서적 보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 변인에서 확인된 행복, 양육 스트레스, 관계 만족의 차이로 이어진다.

흥미롭게도, 서론에서 제시한 부모소명의 의미 중심(목적/정체성, 열정/성장)과 의무 중심(희생/헌신, 의식/집중)의 구분은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과 ‘헌신적 소명-양육형’처럼 일부 집단을 구별하는 데에는 유용했으나, 전체적으로는 LPA 결과에서 뚜렷하게 재현되지 않았다. 다수의 잠재집단에서는 네 하위요인이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은 전체 수준 차이가 더 두드러졌으며, 의미 중심과 의무 중심 간의 부분적 불균형(예: 목적/정체성 또는 열정/성장만 평균 수준)은 일부 집단에서만 관찰되었다. 이는 본 연구 표본에서 부모소명 하위요인들이 실제 양육 맥락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림에도 일 부 집단에서 확인된 제한적 불균형은 부모소명 하 위요인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조합이 양육 행동 및 심리적 특 성과 함께 나타나는 다양한 프로파일을 형성할 수 있음을 탐색적으로 시사한다.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어머니의 행복, 양육 스트 레스, 어머니-자녀 관계 만족 수준을 확인한 결과, 잠재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소명과 긍 정적 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행복감 및 자 녀와의 관계 만족 수준이 높았고,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

우선, 어머니의 행복 수준은 5개 집단 중에서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헌신적 소명-양육형’, ‘평균적 소명-양육형’, ‘의무 적 소명-통제형’, ‘제한된 소명-통제형’이 이었으 며, 이 중 ‘제한된 소명-통제형’만이 다른 네 집단 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행복 수준을 보였다. 이러 한 결과는 어머니의 행복을 예측함에 있어 부정적 양육 특성보다는 부모소명, 긍정적 양육과 같은 긍 정적 자원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소명은 부모의 행복감과 삶 만족을 높이며, 부모소명이 높은 부모들은 자녀와 의 긍정적 관계를 통해 행복을 느낀다고 보고된 바 있다(기쁘다, 이수란, 2022; 이수란 등, 2021; Coulson et al., 2012b). 또한, 삶의 만족과 같은 적응 지표는 부정 정서보다 긍정 정서와 더욱 밀접 한 관계를 가지며, 부정 정서보다 긍정 정서가 삶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Kuppens et al., 2008)도 보고되었다. 따라서 행복 수준에서 ‘제한된 소명-통제형’만이 유의하게 낮은 행복을 보였다는 점은, 부정적 요소의 결여보다는 부모소 명, 긍정적 양육과 같은 긍정적 자원의 수준이 행

복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양육 스트레스 수준은 ‘의무적 소명- 통제형’과 ‘제한된 소명-통제형’은 유의하게 높았 고, ‘평균적 소명-양육형’과 ‘헌신적 소명-양육형’ 이 중간 수준,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 스트레스가 심리적 통 제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실 제로, 심리적 통제가 가장 낮은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은 양육 스트레스도 가장 낮았으며, 반대로 통제 수준이 높은 두 집단은 양육 스트레스 또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심리적 통제 양육이 자녀와 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가 중시킨다는 기존 연구(Barber & Harmon, 2002) 와 일치한다. 아울러, ‘의무적 소명-통제형’과 ‘제 한된 소명-통제형’은 모두 부모소명 중 열정/성장 수준이 낮았는데, 이는 양육 과정에서의 긍정 정서 경험 부족이 스트레스 완충(buffer)을 약화시킨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Tugade & Fredrickson, 2004). 또한, 양육에서의 보람과 기쁨, 즐거움은 부 모의 양육효능감과 부모 역할에 대한 헌신, 자녀에 대한 애착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현 정환, 2020).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 화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향한 통제적 양육을 지양 하고, 자녀 양육에서의 긍정 정서 경험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자녀 관계 만족에 있어서는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이 가장 높았고 ‘헌신적 소 명-양육형’, ‘평균적 소명-양육형’, ‘의무적 소명- 통제형’, ‘제한된 소명-통제형’ 순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며 낮아졌다. 다만,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 은 ‘의무적 소명-통제형’과 ‘제한된 소명-통제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 적 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자녀 간 심리적 거리와

갈등이 증가하고, 상호작용의 질이 저하되어 관계 만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은 고르게 높은 부모소명, 높은 긍정적 양육, 낮은 심리적 통제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자녀와의 관계 만족을 보였다. 이에 비해 '헌신적 소명-양육형'과 '평균적 소명-양육형'은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 만큼의 적극적인 정서 표현이나 일관된 양육 행동은 부족하여 그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자녀 관계 만족이 심리적 통제와 같은 부정적 양육 요인의 결여뿐 아니라, 부모소명과 긍정적 양육 같은 내적·행동적 차원에서의 긍정적 자원이 함께 작동할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양육 스트레스는 각 집단별 심리적 통제 수준에 크게 영향받았던 것과 달리, 어머니-자녀 관계 만족은 심리적 통제뿐만 아니라 긍정적 양육과 부모소명의 질적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 '헌신적 소명-양육형', '평균적 소명-양육형' 모두 통제 수준이 높은 두 집단(의무적 소명-통제형, 제한된 소명-통제형)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그중에서도 '고 소명-지지적 양육형'은 가장 낮은 통제와 가장 높은 긍정적 양육을 보였기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관계에서의 만족은 단지 통제를 줄이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명확한 신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양육 행동이 수반될 때 더욱 촉진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잠재집단 간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능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세 집단(고 소명-지지적 양육형, 제한된 소명-통제형, 헌신적 소명-양육형)은 모두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평균 수준임에도 상이한

양육 행동과 심리적 적응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결합되는 부모소명 및 양육 행동의 조합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는 조건부적 특성임을 시사한다. 평균 수준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상호의존성이 강한 동양 문화권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경향으로, 지지적인 양육과 결합할 때는 적응적으로, 통제적 양육과 결합할 때는 부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반면, 높은 수준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청소년기 자녀의 자율성 요구와 충돌하여 심리적 통제나 조건적 애정과 쉽게 결합되는 것으로 보고되며(Assor et al., 2004; Ng et al., 2014), 본 연구의 '의무적 소명-통제형' 집단이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자녀 양육 맥락에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특정 양육 행동 또는 가치 체계와 결합될 때 부정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변수로 투입한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종교 유무가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우선 취업 중인 어머니일수록 '제한된 소명-통제형'보다 '헌신적 소명-양육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취업 중인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다 민감하고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역할강화관점(role enhancement perspective)을 지지한다(Marks et al., 2001). 또한, 종교가 있는 어머니일수록 '제한된 소명-통제형'보다 '평균적 소명-양육형' 또는 '헌신적 소명-양육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종교적 신념이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 양육을 보다 고차원적인 사명이나 소명으로 인식하게 하고, 비통제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서는 사람 중심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하여 부모 역할에 대한 개인 내적 신념과 행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 집단을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부모소명을 단일한 긍정 자원으로 간주해왔으며, 부모소명이 삶 만족, 행복, 양육 스트레스, 부모소진 등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기쁘다, 이수란, 2022; 김예본 등, 2023; 배유진, 양수진, 2022; 이수란 등, 2021). 어머니의 개인적 및 관계적 특성의 조합에 따라 부모소명의 각 하위요인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도 일부 존재하나(여예인 등, 2024), 부모소명의 하위차원의 조합에 따른 잠재집단을 도출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소명의 다차원성을 반영하여 부모소명의 하위차원과 어머니의 내적 및 행동적 특성의 결합 양상에 따라 이질적인 잠재집단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소명의 구성 양상과 실제 양육 행동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 수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소명이 가진 명과 암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탐색적 의의가 있다. 부모소명은 부모됨을 통해 충만감을 경험하고 부모 역할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긍정적 자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삶의 만족, 웰빙, 긍정 정서 등 적응적인 지표와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Coulson et al., 2012b).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소명 개념이 갖는 양면성을 고려해야 하며, 과도한 수준의 부모소명이 부적절한 양육 태도와 결합하게 되면 부모 개인이나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을 탐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기쁘다, 이수란, 2022; 이수란 등, 2021).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소명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통제

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며, 개인적 행복과 자녀와의 관계 만족 수준이 낮고,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 집단이 발견되었다. 이는 소명 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실질적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명에 대한 연구결과(Bunderson & Thompson, 2009; Vinje & Mittelmark, 2007)를 부모소명의 맥락에 적용하여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 수준을 횡단적으로 살펴보았으므로 부모 역할 지속 과정에서의 심리적 변화를 추정하는 데 제한이 있다. 부모 역할 수행은 자녀의 발달에 맞춰 변화되기에, 개인 혹은 가족의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소명의 변화과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김수진 등, 2022; 이수란 등, 2021).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자녀의 연령 증가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학교급 전환에 따른 어머니의 부모 역할과 심리적 특성,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잠재집단 간 변화나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 Latent Transition Analysis(LTA)와 같은 종단적 잠재모형을 적용하거나, 부모소명 및 양육 행동의 시간적 상호작용과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종단구조모형(Random-intercept Cross-lagged Panel Model: RI-CLPM) 등을 활용한다면 부모 역할의 실제 변화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주관적 관점에서 평가한 심리적 적응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자녀의 특성과 관점까지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어머니가 보고한 수준은 실제 자녀가 지각한 수준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양육

행동과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의 평가는 불일치할 수 있다 (Maurizi et al., 2012).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로 대상을 확장하여, 자녀가 지각한 양육 태도, 부모와의 관계 만족 등을 살펴봄으로써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부모소명이 갖는 의미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아버지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부모소명의 심리적 기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경우 부모소명이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해 보호 효과를 나타낸 반면, 아버지에게는 유의한 보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정지유, 2022), 이는 부모소명이 성별에 따라 상이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한 양육자 간 비교를 통해 부모소명이 갖는 보호 효과의 차이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람 중심 접근법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개인 내적 특성 및 행동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양육 특성을 가진 어머니 집단을 유형화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를 통해 부모됨과 자녀 양육의 맥락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면적으로 조망하고, 양육자의 심리·행동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기여가 있다. 특히 결혼과 양육이 개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대사회에서 부모됨에 대한 명확한 신념을 지니고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실천하는 집단이 존재함을 확인한 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방향성과 가치 지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중

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다양한 양육 과업과 심리적 도전에 직면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정서적 충만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 내적 요인과 양육 행동 기반의 개입 전략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권미경 (2011).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9-41.
- 기쁘다, 이수란 (2022). 부모소명이 부모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관계와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40(1), 41-52.
- 김수진, 손영우, 이수란 (2022). 부모소명 개념에 대한 부와 모의 인식 차이: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한 시각적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코칭**, 6(2), 93-114.
- 김예본, 김유니, 양수진 (2023). 부모소명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미취학 자녀와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다집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6(3), 71-89.
- 김의철, 박영신 (2002). IMF시대 한국 학생과 부모

- 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77-105.
- 박영신, 김의철 (2009). 한국 성인 남녀가 행복에 이르는 길: 직업 성취, 자녀 성공,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467-495.
- 배유진, 양수진 (2022). 다중지표 다중원인 (MIMIC) 분석을 통한 중년여성의 삶에 대한 탐색. **인간 발달연구**, 29(2), 137-164.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6-114.
- 서혜영 (1991).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석말숙 (2004).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생태 체계적 접근: 지역사회 거주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6, 237-261.
- 설경옥, 경예나, 박지은 (2015).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1), 109-131.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명희 (2014).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우울 : 모-자녀 관계만족도, 분노, 외로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737-760.
- 여예인, 강예모, 임지영, 최예라, 양수진 (2024). 미취학 아동 모의 개인 내적 및 관계적 특성에 따른 부모소명과 행복의 차이: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적용.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45(4), 397-411.
- 오은주 (2017). 남녀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유형과 삶의 만족도와 관계-자존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5(4), 139-152.
- 이수란, 배유진, 양수진, 기쁘다 (2021).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4), 153-182.
- 이은지, 도현심 (2020).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행동 및 초등 전환기 아동의 행복감 간의 종단적 교류 및 매개 관계. **아동학회지**, 41(4), 91-104.
- 이인영, 정영숙 (2019).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심리적 통제와 청년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자녀의 자율성 욕구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4), 103-121.
- 이인영 (2022).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심리적 통제 및 청년 자녀의 행복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숙영 (2007).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5(6), 101-111.
- 정교영, 신희천 (2011). 한국판 부모 양육행동 척도(Korean-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K-PSCQ)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2(4), 1287-1305.
- 정지유 (2022). **Parental calling and gender of parents modulate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A moderated-moderation analysis**.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태연, 노현정 (2005).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2), 211-231.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현온강, 조복희 (1994).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7.
- 현정환 (2020).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가족양육지원, 양육보람, 모성적 양육관의 영향에 대해서 -. **한국영유아보육학**, **121**, 69-90.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104_12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https://doi.org/10.1109/tac.1974.1100705>
- Anderson, L. S. (2008). Predictors of parenting stress in a diverse sample of parents of early adolescents in high-risk communities. *Nursing research*, *57*(5), 340-350.
<https://doi.org/10.1097/01.nnr.0000313502.92227.87>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15181>
- Assor, A., Roth, G., & Deci, E. L. (2004). The emotional costs of perceived parental conditional regard: A self-determination theory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72*(1), 47 - 88.
<https://doi.org/10.1111/j.0022-3506.2004.00256.x>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https://doi.org/10.2307/1131780>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15-5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422-002>
- Bauer, D. J., & Curran, P. J. (2003). Distributional assumptions of growth mixture models: implications for overextraction of latent trajectory classes. *Psychological methods*, *8*(3), 338-363.
<https://doi.org/10.1037/1082-989x.8.3.338>
- Berkelaar, B. L., & Buzzanell, P. M. (2015). Bait and switch or double-edged sword? The (sometimes) failed promises of

- calling. *Human relations*, 68(1), 157-178.
<https://doi.org/10.1177/0018726714526265>
- Berlin, K. S., Williams, N. A., & Parra, G. R. (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part 1):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174-187.
<https://doi.org/10.1093/jpepsy/jst084>
- Bunderson, J. S., & Thompson, J. A. (2009). The call of the wild: Zookeepers, callings, and the double-edged sword of deeply meaningful work.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4(1), 32-57.
<https://doi.org/10.2189/asqu.2009.54.1.32>
- Casas, F., Coenders, G., Cummins, R. A., González, M., Figuer, C., & Malo, S. (2008). Does subjective well-being show a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2), 197-205.
<https://doi.org/10.1007/s10902-007-9044-7>
- Coulson, J. C., Oades, L. G., & Stoyles, G. J. (2012a). Parent's conception and experience of calling in child rearing: A 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52(2), 222-247.
<https://doi.org/10.1177/0022167810382454>
- Coulson, J. C., Oades, L. G., & Stoyles, G. J. (2012b). Parents' 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Measurement, development and initial finding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7(2), 83-94.
<https://doi.org/10.1080/17439760.2011.633547>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
<https://doi.org/10.1037//0033-2909.95.3.542>
- Duffy, R. D., Dik, B. J., & Steger, M. F. (2011). Calling and work-related outcomes: Career commitment as a mediat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8(2), 210-218.
<https://doi.org/10.1016/j.jvb.2010.09.013>
- Eaton, M. M., & Pomerantz, E. M. (2004). *Parental contingent self-worth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Greenberger, E., & Goldberg, W. A. (1989). Work, parenting, and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5(1), 22 - 35.
<https://doi.org/10.1037//0012-1649.25.1.22>
- Grolnick, W. S., Price, C. E., Beiswenger, K. L., & Sauck, C. C. (2007). Evaluative pressure in mothers: effects of situation, maternal, and child characteristics on autonomy supportive versus controlling behavior.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3(4), 991-1002.
<https://doi.org/10.1037/0012-1649.43.4.991>

- Guidubaldi, J., & Cleminshaw, H. K. (1985). The development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4*(4), 293-298.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1404_4
- Henderson, W. M., Uecker, J. E., & Stroope, S. (2016). The role of religion in parenting satisfaction and parenting stress among young parents. *The Sociological Quarterly, 57*(4), 675-710.
<https://doi.org/10.1111/tsq.12147>
- Joussemet, M., Landry, R., & Koestner, R. (2008).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parenting. *Canadian Psychology, 49*(3), 194.
<https://doi.org/10.1037/a0012754>
- Jung, T., & Wickrama, K. A.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https://doi.org/10.1111/j.1751-9004.2007.00054.x>
- Kline, R. B. (2023).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5th ed.)*. Guilford Publications.
- Kuppens, P., Realo, A., & Diener, E. (2008). The role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in life satisfaction judgment across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1), 66-75.
<https://doi.org/10.1037/0022-3514.95.1.66>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https://doi.org/10.1093/biomet/88.3.767>
- Lubke, G., & Muthen, B. O. (2007). Performance of factor mixture models as a function of model size, covariate effects, and class-specific parameter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1), 26-47.
https://doi.org/10.1207/s15328007sem1401_2
- Lubke, G., & Neale, M. C. (2006). Distinguishing between latent classes and continuous factors: Resolution by maximum likelihood?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1*(4), 499-532.
https://doi.org/10.1207/s15327906mbr4104_4
- Mahoney, A., Pargament, K. I., Tarakeshwar, N., & Swank, A. B. (2001). Religion in the home in the 1980s and 1990s: a meta-analytic review and conceptual analysis of links between religion, marriage, and parent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4), 559-596.
<https://doi.org/10.1037//0893-3200.15.4.559>
- Marks, S. R., Huston, T. L., Johnson, E. M., & MacDermid, S. M. (2001). Role balance among white married couples. *Journal of*

- Marriage and Family*, 63(4), 1083-1098.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1.01083.x>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J. Strauss & G. R. Goethals (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pp. 18-48).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1-4684-8264-5_2
- Maurizi, L. K., Gershoff, E. T., & Aber, J. L. (2012). Item-Level Discordance in Parent and Adolescent Reports of Parenting Behavior and Its Implications for Adolescents' Mental Health and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8), 1035 - 1052.
<https://doi.org/10.1007/s10964-011-9741-8>
- Nagin, D. S.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4159/9780674041318>
- Ng, F. F., Pomerantz, E. M., & Deng, C. (2014). Why are Chinese mothers more controlling than American mothers? "My child is my report card". *Child Development*, 85(1), 355-369.
<https://doi.org/10.1111/cdev.12102>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https://doi.org/10.1080/10705510701575396>
- Nylund-Gibson, K., Grimm, R., Quirk, M., & Furlong, M. (2014). A latent transition mixture model using the three-step specific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439-454.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15375>
- Padilla Walker, L. M., & Thompson, R. A. (2005). Combating conflicting messages of values: A closer look at parental strategies. *Social Development*, 14(2), 305-323.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5.00303.x>
- Pasley, K., & Gecas, V. (1984). Stresses and satisfactions of the parental role.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7), 400-404.
<https://doi.org/10.1111/j.2164-4918.1984.tb00236.x>
- Peel, D., & McLachlan, G. J. (2000). Robust mixture modelling using the t distribution. *Statistics and computing*, 10, 339-348.
<https://doi.org/10.1023/A:1008981510081>
- Ryan, R. M., &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3-33),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461-464.
<https://doi.org/10.1214/aos/1176344136>
- Sclove, S.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 333-343.
<https://doi.org/10.1007/bf02294360>
- Skinner, E., Johnson, S., &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502_3
- Steinberg, L., & Steinberg, W. (1995). *Crossing paths: How your child's adolescence triggers your own crisis*. Simon & Schuster.
- Tugade, M. M., & Fredrickson, B. L. (2004).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2), 320-333.
<https://doi.org/10.1037/0022-3514.86.2.320>
- Vermunt, J. K., & Magidson, J. (2002). Latent class cluster analysis. In J. A. Hagenaars & A. L. McCutcheon (Eds.), *Advances in latent class analysis* (pp. 89-106).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499531.004>
- Vinje, H. F., & Mittelmark, M. B. (2007). Job engagement's paradoxical role in nurse burnout. *Nursing & health sciences*, 9(2), 107-111.
<https://doi.org/10.1111/j.1442-2018.2007.00310.x>
- Wang, Q., Pomerantz, E. M., & Chen, H. (2007). The role of parents' control in early adolescents' psychologic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hild development*, 78(5), 1592-1610.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7.01085.x>
- Weber, M. (1958). Science as a vocation. *Daedalus*, 87(1), 111-134.
- Weller, B. E., Bowen, N. K., & Faubert, S. J. (2020). Latent class analysis: a guide to best practice. *Journal of Black Psychology*, 46(4), 287-311
<https://doi.org/10.1177/0095798420930932>
- Wolfinger, N. H., & Wilcox, W. B. (2008). Happily ever after? Religion, marital status, gender and relationship quality in urban families. *Social Forces*, 86(3), 1311-1337.
<https://doi.org/10.1353/sof.0.0023>

When is Parental Calling Adaptive?: Differences in Happiness, Parenting Str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ccording to Latent Profiles of Parental Calling and Parenting Characteristics

Sungsue Im¹

Sujin Yang²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M.A.¹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²

This study identified latent profiles of mothers based on parental calling, child-based self-worth, positive parent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and examined differences in happiness, parenting stress, and mother-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A total of 518 Korean mothers with children aged 13-18 participated. Latent profile analysis revealed five groups: High Calling-Supportive Type (11.1%), Committed Calling-Parenting Type (25.3%), Moderate Type (48.1%), Obligated Calling-Controlling Type (4.0%), and Restricted Calling-Controlling Type (11.5%). Mothers in profiles with higher calling and positive parenting reported higher happin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lower parenting stress. However, the Obligated Calling-Controlling Type showed high stress and low well-being despite high call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ombination of parental calling, parenting behaviors, and psychological attitudes toward children can lead to either adaptive or maladaptive outcomes.

Keywords : Parental Calling, Child-based Self-worth, Positive Parenting, Psychological Control, LPA